

아동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의 판별변인 분석*

Discriminant Analysis of Bullying Participant Roles among Children*

김연화(Youn Hwa Kim)¹⁾

한세영(Sae Young Han)²⁾

ABSTRACT

This paper was an examination of gender-specific behaviors in children and the types of bullying behavior among 1,181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s student identified were then classified.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individual variables, family variables, and school variables.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and comparative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SPSS software program. Our results showed that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yielded a function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that proved effective in classifying bully, reinforcer, assistant, victim, outsider and defender types in boys. In girls,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yielded a function of individual variables that was effective in classifying bully, reinforcer, assistant, victim, outsider and defender types.

Key Words : 또래괴롭힘(bullying), 가해집단(bully), 강화집단(reinforcer), 동조집단(assistant), 피해집단(victimization), 방관집단(outsider), 방어집단(defender).

I. 서 론

또래괴롭힘은 힘이 우세한 한명이나 그 이상의 또래들이 힘이 약한 또래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 몇 달이나 몇 년처럼 오랜기간 지속되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 행위이며, 제 삼자를 통해 직

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도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Björkqvist, Ekman, & Lagerspetz, 1982; Maeda, 2003; Olweus, 1978, 1993). 또래괴롭힘은 싸우는 것과 같은 공격적 행동과는 달리 힘의 불균형과 지속성 같은 특성이 있어(Maeda, 2003),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 이 논문은 2009년도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에서 사용한 data의 일부를 사용하였음.

¹⁾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²⁾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n Hwa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10 Seongbong-ro, Heungdeok-gu, Cheongju Chungbuk 361-763, Korea
E-mail : kyh3511@hanmail.net

점에서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학령기에는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구별하는 인지적 성숙이 시작되면서(문혜신, 2001) 또래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과 사회성 발달이 촉진되는 시기이므로 또래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행동은 아동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선행연구에서도(김길임·심희옥, 2002; 이춘재·곽금주, 2000; 김용태, 1997) 아동이 초등학생 때 이미 또래괴롭힘을 경험하고 괴롭힘이 시작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되었고, 가해나 피해의 경험 정도가 중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 아동의 인지·사회·정서의 긍정적 발달을 이루어야 중요한 시기인 학령기의 또래괴롭힘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또래괴롭힘의 가해아와 피해아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해자는 충동성이 높고(박미연, 2000; 이상균, 1999),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며(이춘재·곽금주, 1999),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인 감정입이 낮았고(이해경·김혜원, 2001; Maeda, 2003),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Marano, 1995; Olweus, 1980), 이들이 가해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가해아들은 다른 아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치심과 죄책감 또한 또래괴롭힘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Menesini, et, al., 2003), 자아존중감은 또래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행동과 부적상관을 보여(도현심·김선미, 2006), 자아존중감이 또래괴롭힘의 다른 참여유형과도 상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높은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위축되어 있으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러한 또래관계를

유지시키려는 관계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Schwartz와 동료들(1993)은 피해자의 복종적 행위가 가해자에게 보상으로 작용하여 가해행위를 반복시키고 이러한 반응양식이 만성적인 피해자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발달초기에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아들은 그 경험으로 인해 관계형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올바른 또래관계를 경험할 기회를 박탈당하며 문제행동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Dodge, Coie, Pettit & Price, 1990). 다른 측면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피해아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박경숙·손희권, 1998).

Salmivalli와 동료들(1996)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아를 괴롭히는 가해아 뿐 아니라 가해아의 괴롭히는 행동을 부추기는 강화자나 괴롭히는 행동을 함께 돕는 동조자, 괴롭히는 상황을 모른 채하는 방관자와,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아를 도와주는 방어자에게 관심을 가졌다. 지금까지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선행연구는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으로 이원화하여 이러한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거나 또는 괴롭힘의 원인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또래괴롭힘 현상의 원인을 살펴본 몇몇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가해집단에 대한 또래 동조성 때문에 집단괴롭힘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유귀순, 2001). 이러한 견해는 집단으로 구성된 또래들간의 관계에 압력과 동조라는 요인이 작용하며, 또래괴롭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외 제 3의 역할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래괴롭힘의 가해자들은 괴롭히는 행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괴롭히는 행동에 동참하며 (김용태, 1997). 폭력을 주도한 사람보다 또래의 동조압력에 의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더 잔인한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한상철, 2001). 즉, 또래압력이 또래괴롭힘에서 역기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학령기 및 청소년기의 또래괴롭힘이 지속되는 이유는 가해아와 피해아 이외의 주변또래들의 적극적 동조나 암묵적 동조 등이 강화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해행동을 했을 때 주변또래들이 가해행동을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것은 가해아에게 심리사회적 보상이 되어 강화자나 동조자들은 또래괴롭힘이 지속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미정, 2006; 차윤희, 2005; Maeda, 2003; Salmivalli et al., 1996; Sutton & Smith, 1999). 이렇게 또래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역할은 강화와 동조를 선택하는 집단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더라도 가해행동을 막지 않거나 모른 체 하는 것 역시 가해행동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Salmivalli, 1999). 동조자와 방관자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이상균, 199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방관자들은 또래들의 암묵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피해자들과 어울릴 경우 자신도 피해를 당하거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 두려워 또래괴롭힘 행위에 대해 모른 체 하거나 묵인하고 있어 언제든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다(서미정, 2006). 한편으로는 다른 또래들의 시선과 피해아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심리적 갈등을 놓이게 됨으로써,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선택하지 못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그 자체가 가해를 부

추길 수 있다.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다양한 역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아동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아동의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넘어 가족과 학교의 다양한 체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래괴롭힘에 관련된 가족요인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이면 아동은 관계상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을 많이 보였고, 어머니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면 아동은 명백한 괴롭힘을 많이 보였다(장영애 · 이영자, 2007). 또한 가해집단은 피해집단보다 가족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고(이혜경 · 김혜원, 2001), 부모가 갈등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또래괴롭힘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박보경, 2002; 정은희 · 이미숙, 2004).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요인만을 따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박보경, 2002; 서미정 · 김경연, 2005) 다양한 환경체계를 통합적으로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지지 및 부모갈등이 또래괴롭힘의 다양한 참여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변인 중에서는 친한 친구와의 우정의 질이 또래괴롭힘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Boulton. & Underwood, 1992) 친한 친구가 있는 아동은 만성적인 또래괴롭힘을 경험하지 않는다(Hodges & Perry, 1999)고 하였다. 친한 친구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정선진, 2006) 괴롭힘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이다. 친구지지, 즉 학급또래들의 지지는 또래괴롭힘 행동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작용했는데, 일부 선행연구에 의하면 친구지지가 낮으면 가해와 피해행동이

높아지는(김희화, 2001; 이은주, 2001) 반면,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가해행동이 높아져, 가해집단의 아동들은 친구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기도 했다(김혜원·이해경, 2000; 이춘재·곽금주, 1999; 조미숙, 2003). 이렇듯 선행연구들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며, 가해와 피해집단을 제외한 강화, 방어, 동조 및 방관집단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므로, 친구지지가 또래괴롭힘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규명하고 또래괴롭힘의 여러 가지 유형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교사의 지지적인 행위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비행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Garmezy, 1993; Werner, 1989), 교사지지가 높으면 가해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유진, 2006). 반면,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피해정도가 증가한다는 결과(김혜원·이해경, 2000)도 있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에 따라 학교변인인 친구와 교사의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에 대한 연구는 가해에 대한 동조 연구(이희경, 2003; 전주연 외, 2004)와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의 동조성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개인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거나(Maeda, 2003),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를 제외한 주변또래 유형인 동조, 방관, 방어집단의 심리적 변인만을 탐색하였다(서미정·김경연, 2006). 그러나 또래괴롭힘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피해자 뿐 아니라 강화, 동조, 방관, 방어, 피해집단 모두를 포함한 또래집단 전체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개입이 요구되므로(김예성, 2000)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선택하는 다양한 행동을 모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불어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요인 외 가정과 학교요인을 함께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는 매우 부족하여 또래괴롭힘의 관련변인에 대해 포괄적인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족과 학교 등 다양한 체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또래괴롭힘의 다양한 참여유형을 판별해 줄 수 있는 개인, 가족, 학교변인에 대한 탐색을 통해,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한편,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성차에 대한 연구를 보면 남아가 여아에 비해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며(최미경·도현심, 2000; Boulton & Underwood, 1992; Gills & Ollendick, 2002), 남아는 신체적 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또래괴롭힘을 경험하고 여아는 또래관계에서 간접적인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Olweus, 1994). 즉 남아와 여아가 경험하는 또래괴롭힘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반면 성차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장영애·이영자, 2007; 정은희·이미숙, 2004)도 있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또래괴롭힘 유형은 방어해주는 역할과 가해를 동조하거나 강화하는 역할 또는 방관하는 역할들로 세분화 되어있지만,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다양한 참여유형을 남녀간의 차이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또래집단에서 발생하는 또래괴롭힘을 가해집단, 강화집단, 방어집단, 동조집단, 피해집단 및 방관집단으로 나누어 아동의 개인, 가족, 학교변인이 각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아동들이 선택하는 다양한 참여유형을 상대적

으로 판별해 줄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성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에 따라 개인, 가족, 학교변인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의 개인, 가족, 학교변인에서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을 판별하는데 유용한 변인은 무엇이며, 또한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을 판별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과 각 변인은 대전과 충청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인 40개 학급의 1300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선생님들께 직접 전달하였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봉투에 봉하여 수거되었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1220부로 응답이 불확실한 학급 35명과 또래괴롭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Salmivalli와 동료들(1996)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이 불분명한 4부를 제외시켜 총 1181부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아가 51.4%, 여아가 48.6%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5학년 51.7%, 6학년 48.3%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은 각각 41~44세가

46.5%, 53.6%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이 52.2%,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이 51.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어머니의 43.2%가 전업주부라고 하였으며, 아버지는 사무직이 44.5%로 가장 많았다.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성적은 ‘아주 잘한다’고 지각한 아동은 36.6%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라고 지각한 아동이 32.9%였다. 아동이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이다’가 46.3%였고 ‘비교적 잘산다’가 42.1%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또래괴롭힘 참여유형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은 Salmivalli와 그의 동료들(1996)이 사용한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의 49문항을 Salmivalli와 Voeten(2004)이 사용한 축약형인 15문항을 사용하여 또래괴롭힘의 가해집단, 강화집단, 방어집단, 동조집단 및 방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괴롭힘의 피해자를 구분하기 위해 Schwartz, Farver, Chang과 Lee-Shin(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또래괴롭힘의 피해를 측정하는 3문항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의 분류는 Salmivalli와 동료들(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각 유형별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집단의 점수를 산출하여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차가 최소 0.1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만약 두 집단의 점수차가 0.1 이하이면 두 집단의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어 명확하게 집단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집단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또래괴롭힘의 유형은 ‘나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생길 때, 먼저 괴롭

히는 행동을 시작한다' 등의 직접적,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가해집단, '나는 어떤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들과 함께 킬킬대며 웃기도 한다' 등의 괴롭히는 행동을 부추기는 강화집단, '나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그만 두라고 말한다' 등의 괴롭힘의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어 집단, '나는 괴롭힘이나 무시당하는 친구를 동망 못 가게 붙잡는다' 등의 괴롭히는 행동을 같이 하는 동조집단, '나는 놀이에 끼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한다' 등의 괴롭힘의 피해집단 및 '나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황에 대해 아는 채 안하는 편이다' 등의 괴롭히는 행동에 관여하지 않는 방관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아동 자신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유형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가해 .71, 강화 .69, 방어 .74, 동조 .70, 피해 .75, 방관 .70이다.

2) 아동의 개인, 가족환경 및 학교변인

(1) 아동의 개인변인

아동의 개인변인 중 충동성은 Kris Bosworth, Dorothy L. Espelage 및 Thomas R. Simon(1999)의 Barratt Impulsiveness Scale를 사용한 박미연(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나는 생각없이 순간적으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70이다. 자기조절능력은 Gresham과 Elliott(1990)가 개발한 SSRS(Social Skills Rating System)의 척도를 사용한 김윤경(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나의 의견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화를 통해서 타협한다' 등의 10문항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을 잘하는 것으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2이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95)의 Self-Esteem Scale

을 번안한 도현심, 최미경(1998)의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10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이다. 또래압력은 Sanders가 제작한 TTQ(Tough Turf peer pressure Quiz)을 김주연(1996)이 사용한 24문항을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높은 두 요인으로 축약된 '나는 현재 유행에서 벗어났거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옷은 피하는 편이다' 등의 9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압력을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이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SSGS(State Shame and Guilt Scale)척도(Tangney & Dearing, 2002)를 사용한 한세영(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나는 내가 가치없고, 무기력하다고 느낀다' 등의 수치심과 '나는 내가 한 나쁜 일에 대해 항상 생각한다' 등의 죄책감을 각각 5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수치심이 .84, 죄책감이 .80이다. 감정이입은 Bryant(1982)의 Empathy Scale를 연구자가 직접 번안하여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후 요인부하량이 높은 '우는 아이를 보면 나도 울고 싶어진다' 등의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이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72이다.

(2) 아동의 가족변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박영애(1995)의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 척도에서 요인부하량이 높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방임허용적 양육행동을 방임적 양육행동과 허용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부모

님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신다' 등의 11문항으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며,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부모님은 나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등의 10문항으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고, 방임적 양육행동은 '부모님은 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쓰지 않으신다' 등의 3문항으로 신뢰도 Cronbach's α 는 .61이며, 허용적 양육행동은 '부모님은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잘못을 해도 그냥 봐주신다' 등의 6문항으로 신뢰도 Cronbach's α 는 .65이다. 학대적 양육행동은 허묘연(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부모님은 내가 잘못하면 때부터 드신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다. 부모지지는 이경주(1997)의 척도를 사용한 하영희(2001)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등의 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다. 부모갈등은 Straus (1979)가 개발한 Conflict Tactics Scales(CTS)를 번안하여 사용한 박보경(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부모님께서 싸우실 때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거나 발로 찬다' 등의 12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다.

(3) 아동의 학교변인

아동의 학교변인에서 우정의 질은 Sharabany (1994)의 Intimate Friendship Scale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총 32문항을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하고 전문가 2인과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후 15문항으로 축소하여 '나는 단짝친구와 거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동성의 단짝친구와의 우정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같은 반에 있는 동성의 단짝친구를 1명만 선택하여, 그 친구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단짝과의 우정의 질이 높은 것이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다. 친구의 지지와 교사지지는 이경주(1997)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하영희(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나를 인정해주는 친구가 있다' 등의 친구지지와 '어려운 일로 상담을 하면 나를 도와줄 선생님이 계신다' 등의 교사지지를 각각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 교사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친구지지가 .90, 교사지지가 .91이다. 아동의 개인, 가족 및 학교변인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또래 괴롭힘 유형별 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변인과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개별비교는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하였다. 개인, 가족, 학교변인들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의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다.

III 연구결과

1. 또래괴롭힘 참여유형별 분포

아동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별 분포를 성에 따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방어 집단이 22.7%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집단 20.9%,

<표 1> 또래괴롭힘 참여유형별 성에 따른 분포 N(%)

또래괴롭힘 유형	남학생	여학생	전체
가해집단	85(14.0)	52(9.1)	137(11.9)
강화집단	78(12.9)	70(12.2)	148(12.5)
방어집단	138(22.7)	165(28.7)	308(25.7)
동조집단	82(13.5)	70(12.2)	153(12.9)
피해집단	127(20.9)	63(11.0)	190(16.1)
방관집단	97(16.0)	154(26.8)	251(21.3)
전체	607(100.0)	574(100.0)	1181(100.0)

방관집단 16.0%, 가해집단 14.0%, 동조집단 13.5%, 강화집단에는 12.9%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방어집단이 28.7%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방관집단 26.8%, 동조집단과 강화집단 12.2%, 피해집단 11.0%, 가해집단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또래괴롭힘 참여유형과 아동의 개인, 가족 및 학교변인

1) 또래괴롭힘 참여유형과 아동의 개인변인
남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별 개인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개인변인인 충동성은 가해집단과 동조집단이 방어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F = 9.73, p < .001$), 자기조절 능력은 방어집단이 가해집단, 강화집단 및 동조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F = 12.55, p < .001$). 자아존중감은 피해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방어집

<표 2> 남학생과 여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별 개인변인의 차이 M(SD)/Scheffé

		가해집단	강화집단	방어집단	동조집단	피해집단	방관집단	F
충동	남	2.50(.57)a	2.41(.60)ab	2.00(.66)c	2.52(.61)a	2.49(.61)ab	2.19(.65)bc	9.73***
	여	2.60(.61)a	2.47(.63)a	2.00(.56)b	2.48(.51)a	2.41(.58)a	2.30(.64)ab	14.32***
자기 조절	남	2.56(.51)c	2.53(.52)c	2.93(.49)a	2.58(.43)c	2.67(.39)bc	2.84(51)ac	12.55***
	여	2.56(.68)b	2.70(.40)ab	2.88(.47)a	2.59(.48)b	2.69(.45)ab	2.80(42)ab	6.37***
자아 존중감	남	2.85(.49)bc	2.85(.53)bc	3.15(.45)a	2.90(.43)b	2.64(.58)c	2.99(.51)ab	14.29***
	여	2.76(.48)bc	2.91(.55)ab	3.17(.46)a	2.90(.55)ab	2.61(.53)c	2.91(.54)ab	12.49***
또래 압력	남	2.06(.61)b	1.98(.53)bc	1.83(.51)c	1.99(.63)b	2.37(.63)a	2.05(.65)ab	11.77***
	여	2.31(.63)a	2.28(.60)bc	2.00(.49)c	2.29(.54)bc	2.58(.56)a	2.42(.60)a	13.87***
수치심	남	1.82(.65)b	1.63(.67)bc	1.45(.61)c	1.72(.64)bc	2.18(.77)a	1.55(.59)bc	18.83***
	여	2.00(.67)ab	1.87(.73)b	1.45(.56)c	1.93(.63)ab	2.33(.80)a	1.71(.71)bc	18.83***
죄책감	남	2.17(.70)bc	2.06(.68)bc	2.02(.80)c	2.13(.70)bc	2.39(.68)a	2.00(.74)c	4.79***
	여	2.42(.72)ab	2.18(.77)abc	1.84(.71)c	2.35(.69)ab	2.43(.73)a	2.04(.74)bc	10.84***
감정 이입	남	2.36(.42)c	2.42(.61)bc	2.69(.43)a	2.37(.43)bc	2.58(.43)ab	2.48(.46)abc	8.88***
	여	2.59(.42)bc	2.56(.48)c	2.90(.41)a	2.58(.41)bc	2.84(.38)a	2.79(.42)ab	11.92***

*** $p < .001$.

단이 가장 높았고($F = 14.29, p < .001$), 또래압력을 살펴보면 방어집단에 비해 가해집단과 동조집단이 또래의 압력을 많이 받았고, 가해집단과 동조집단에 비해 피해집단의 아동들이 또래의 압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1.77, p < .001$). 수치심에서는 피해집단은 가해집단에 비해 수치심을 많이 보였으며, 가해집단은 방어집단에 비해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8.83, p < .001$), 피해집단은 방어집단과 방관집단에 비해 죄책감도 많이 갖는 것을 보여주었다($F = 4.79, p < .001$). 또한 가해집단은 방어집단에 비해 감정이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 8.88, p < .001$).

여학생의 충동성은 방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F = 14.32, p < .001$), 자기조절능력은 방어집단이 가해집단과 동조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F = 6.37, p < .001$). 자아존중감은 피해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방어집단이 가장 높았고($F = 12.49, p < .001$), 또래압력을 살펴보면 방어집단에 비해 가해집단, 피해집단 및 방관집단이 또래의 압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3.87, p < .001$). 수치심에서는 피해집단은 강화집단에 비해 수치심을 많이 보였으며, 강화집단은 방어집단에 비해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8.83, p < .001$), 피해집단은 방어집단에 비해 죄책감도 많이 갖는 것을 보여주었다($F = 10.84, p < .001$). 또한 강화집단은 방어집단과 방관집단에 비해 감정이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 11.92, p < .001$).

2) 또래괴롭힘 참여유형과 아동의 가족변인
남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별 가족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피해집단이 가

장 낮았으며($F = 11.04, p < .001$),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방어집단에 비해 피해집단이 높았다($F = 4.02, p < .01$). 방임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분류는 되지 않았고($F = 3.99, p < .01$), 학대적 양육행동은 방어집단에 비해 가해와 피해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5.06, p < .001$). 허용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집단이 부모의 지지를 가장 낮게 지각하였고($F = 16.91, p < .001$), 부모갈등에서도 방어집단에 비해 피해집단에서 부모의 갈등을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 = 4.10, p < .01$).

여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별 가족변인의 차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피해집단에 비해 방어집단이 가장 높았고($F = 9.97, p < .001$),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방어집단에 비해 강화, 동조 및 피해집단이 높게 나타났고($F = 5.71, p < .001$). 방임적 양육행동은 방어집단에 비해 가해집단이 높았고($F = 8.46, p < .001$), 허용적 양육행동도 가해집단이 높았다($F = 5.29, p < .001$). 그러나 학대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분류는 되지 않았다($F = 4.19, p < .01$). 부모지지는 방어집단에 비해 피해집단이 부모지지를 낮게 지각하였고($F = 10.60, p < .001$), 부모갈등에서도 피해집단이 부모갈등을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 = 3.84, p < .01$).

3) 또래괴롭힘 참여유형과 아동의 학교변인
또래괴롭힘 참여유형별 학교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친구와의 우정의 질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F = 3.33, p < .01$), 친구지지에서는 피해집단이 가장 낮았으며($F = 18.84, p < .001$). 교사지지에서는 방어집단이 다

<표 3> 남학생과 여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별 가족변인의 차이 M(SD)/Scheffé

		가해집단	강화집단	방어집단	동조집단	피해집단	방관집단	F	
온정 수용	남	3.25(.69)a	3.23(.73)a	3.50(.59)a	3.27(.81)a	2.86(.74)b	3.32(.70)a	11.04***	
	여	3.17(.61)abc	3.12(.79)bc	3.49(.52)a	3.05(.74)bc	2.89(.64)c	3.26(.68)ab	9.97***	
어머니	남	2.07(.59)ab	1.97(.65)ab	1.82(.62)b	2.04(.57)ab	2.13(.61)a	2.10(.67)ab	4.02**	
	여	2.00(.60)ab	2.03(.71)a	1.69(.56)b	2.04(.61)a	2.04(.69)a	1.89(.66)ab	5.71***	
양육행동	방임	남	1.67(.68)	1.63(.60)	1.43(.57)	1.62(.60)	1.67(.56)	1.44(.52)	3.99**
		여	1.77(.55)a	1.65(.67)ab	1.33(.43)c	1.64(.56)ab	1.54(.53)abc	1.46(.47)bc	8.46***
	허용	남	1.88(.53)	1.80(.56)	1.74(.51)	1.85(.51)	1.85(.57)	1.66(.50)	2.23
		여	2.04(.44)a	1.80(.54)ab	1.69(.47)b	1.94(.48)ab	1.84(.49)ab	1.80(.49)ab	5.29***
학대	남	1.69(.73)a	1.44(.66)ab	1.31(.53)b	1.46(.62)ab	1.65(.76)a	1.49(.65)ab	5.06***	
	여	1.40(.51)	1.33(.49)	1.21(.44)	1.40(.69)	1.48(.64)	1.22(.45)	4.19**	
부모 지지	남	3.37(.63)a	3.46(.63)a	3.65(.54)a	3.53(.51)a	3.00(.81)b	3.58(.53)a	16.91***	
	여	3.38(.56)bc	3.61(.50)ab	3.74(.43)a	3.50(.57)abc	3.24(.62)c	3.59(.50)ab	10.60***	
부모 갈등	남	1.38(.55)ab	1.32(.42)ab	1.21(.33)b	1.41(.57)ab	1.46(.55)a	1.31(.50)ab	4.10**	
	여	1.38(.55)ab	1.39(.52)ab	1.32(.52)ab	1.53(.53)ab	1.39(.43)a	1.24(.36)b	3.84**	

** $p < .01$. *** $p < .001$.

른 집단에 비해 교사의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0.64, p < .001$).

여학생은 친구지지에서는 피해집단에 비해 방어집단의 친구지지가 높게 나타났다($F = 11.21, p < .001$). 교사지지에서는 방어집단이 가해집단, 강화집단 및 동조집단에 비해 교사의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 = 7.06, p < .001$).

3.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을 판별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아동의 개인, 가족 및 학교변인이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을 판별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한지를 살펴보고, 또래괴롭힘 유형을 판별하는데 영향력이 큰 독립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다중

판별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판별함수를 도출하기 위한 가정은 첫째, 독립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보통 가장 작은 종속변인 집단의 사례수가 20을 넘으면 정규성에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둘째, 종속변인에 의해 범주화되는 집단들의 분산-공분산행렬이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사례수가 많은 경우 정규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판별분석은 정규성 검토에 민감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서의훈, 2005; 정충영·최이규, 2009). 마지막으로 판별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표본의 크기는 독립변인 수의 20배 이상이 요구되면 종속변인의 각 범주에 최소한 20개의 관측치가 요구되

<표 4> 남학생과 여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별 학교변인의 차이 M(SD)/Scheffé

		가해집단	강화집단	방어집단	동조집단	피해집단	방관집단	F
우정의 질	남	3.01(.67)	2.77(.68)	3.06(.56)	2.89(.59)	2.80(.64)	2.92(.63)	3.33**
	여	3.13(.65)	3.11(.53)	3.24(.50)	3.14(.45)	3.01(.53)	3.09(.51)	2.18
친구 지지	남	3.39(.59)b	3.43(.64)b	3.63(.53)ab	3.47(.51)b	2.96(.78)c	3.57(.55)b	18.84***
	여	3.39(.54)bc	3.61(.50)ab	3.72(.43)a	3.46(.56)abc	3.21(.61)c	3.59(.50)ab	11.21***
교사 지지	남	2.81(.87)b	2.86(.78)b	3.37(.67)a	2.99(.87)b	2.65(.86)b	2.91(.99)ab	10.64***
	여	2.87(.78)b	2.96(.92)b	3.40(.71)a	2.97(.72)b	3.08(.71)ab	3.14(.72)ab	7.06***

** $p < .01$. *** $p < .001$.

는데, 본 연구의 또래괴롭힘 유형별 사례수는 모두 이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판별분석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누어 또래괴롭힘 유형을 판별해 보고자 한다.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의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판별함수가 5개가 도출되었으나 유의한 판별함수 3개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제 1 판별함수의 고유값은 0.375이며, 제 2 판별함수의 고유값은 0.202이고, 제 3 판별함수의 고유값은 0.082로 나타나 제 1 판별함수에 의해 총 분산의 52.1%가 설명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제 1 판별함수의 고유값은 0.385이며, 제 2 판별함수의 고유값은 0.204이고, 제 3 판별함수의 고유값은 0.108로 나타나 제 1 판별함수에 의해 총 분산의 51.6%가 설명됨을 알 수 있다.

판별함수의 판별력에 대한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Wilks' λ 에 대한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제 1 판별함수($\chi^2 = 333.43$, $df = 85$, $p < .001$), 제 2 판별함수($\chi^2 = 167.86$, $df = 64$, $p < .001$), 제 3 판별함수($\chi^2 = 72.11$, $df = 45$, $p < .01$)에 의한 주변 또래 유형간의 판별점수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4 판별함수($\chi^2 =$

31.03 , $df = 28$, $p = .316$), 제 5 판별함수($\chi^2 = 9.41$, $df = 13$, $p = .742$)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제 1 판별함수($\chi^2 = 338.04$, $df = 85$, $p < .001$), 제 2 판별함수($\chi^2 = 171.90$, $df = 64$, $p < .001$), 제 3 판별함수($\chi^2 = 77.00$, $df = 45$, $p < .01$)에 의한 주변 또래 유형간의 판별점수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4 판별함수($\chi^2 = 24.43$, $df = 28$, $p = .659$), 제 5 판별함수($\chi^2 = 9.38$, $df = 13$, $p = .744$)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의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과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구조행렬 계수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제 1 판별함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은 개인변인에서는 충동성, 자아존중감, 또래압력, 수치심, 죄책감이었고, 가족변인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수용적 양육행동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부모지지, 부모갈등 이었으며, 학교변인에서는 친구지지였다. 제 2 판별함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은 개인변인인 자기조절 능력과 감정이입이었고, 제 3 판별함수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적 양육행동이였다.

<표 5> 판별함수의 유의도

	함수	고유값 ^a	공통변량(%)	정준상관계수 ^b	Wilks' λ^c	χ^2	df	유의확률
남학생	1	.375	52.1	.522	.527	333.43	85	.000
	2	.202	28.1	.410	.724	167.86	64	.000
	3	.082	11.4	.275	.871	72.11	45	.006
여학생	1	.385	51.6	.527	.516	338.04	85	.000
	2	.204	27.4	.412	.714	171.90	64	.000
	3	.108	14.5	.313	.860	77.00	45	.002

a : 이 값이 클수록 판별함수의 설명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b : 판별점수와 집단들간의 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이 클수록 판별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c : 이 값이 적을수록 집단간의 판별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제 1 판별함수에서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을 구분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수치심, 친구 지지와 부모지지,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온정/수

용적 양육행동, 또래압력, 충동성, 죄책감, 방임적 양육행동 및 부모갈등으로 나타났다. 감정이입과 자기조절능력이 제 2 판별함수와 상관이

<표 6> 남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남학생		구조행렬 ^a		
변인		함수1	함수2	함수3
개인변인	수치심	-.67*	.21	.02
학교변인	친구지지	.62*	-.18	.05
가족변인	부모지지	.59*	-.18	.03
개인변인	자아존중감	.54*	.04	-.12
가족변인	어머니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51*	-.12	-.18
개인변인	또래압력	-.50*	.18	.36
개인변인	충동성	-.37*	-.34	-.13
개인변인	죄책감	-.32*	.18	-.09
가족변인	방임적 양육행동	-.31*	-.20	-.09
가족변인	부모갈등	-.28*	-.09	.14
개인변인	감정이입	.13	.61*	-.18
개인변인	자기조절능력	.35	.51*	.15
학교변인	교사지지	.40	.20	-.43*
가족변인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24	-.04	.41*
가족변인	허용적 양육행동	-.19	-.12	-.26*
가족변인	학대적 양육행동	-.29	-.09	.17
학교변인	우정의 질	.19	.14	-.14

a : 이 계수값이 클수록 판별함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의미함.

* : 각 변인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함수를 표시하는 부호임.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제 3 판별함수에서는 교사지지,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및 허용적 양육행동이 상관이 높은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 정도와, 친구와 부모의 지지가 어떠한지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얼마나 지각하는지, 또래들의 압력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등에 따라 어떠한 또래괴롭힘 유형에 속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

또래괴롭힘 유형의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과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구조행렬 계수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여

학생의 제 1 판별함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은 개인변인에서는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수치심, 죄책감, 감정이입 이었고, 가족변인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수용적, 방임적 및 학대적 양육행동이었고, 학교변인에서는 친구와 교사지지였다. 제 2 판별함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은 개인변인인 또래압력과 학교변인인 우정의 질 이었으며, 제 3 판별함수에서는 부모갈등이었다.

제 1 판별함수에서 또래괴롭힘 유형을 구분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충동성, 수치심, 죄책감, 감정이입,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 및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교사지지, 친구지지, 자기조절능력, 거부/제재적 양

<표 7> 여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여학생		구조행렬 ^a		
변인		함수1	함수2	함수3
개인변인	충동성	.58*	.00	.16
개인변인	수치심	.54*	-.35	-.34
개인변인	죄책감	.46*	-.08	.22
개인변인	감정이입	-.45*	-.28	-.21
개인변인	자아존중감	-.43*	.40	.12
가족변인	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	.42*	.10	.08
가족변인	어머니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41*	.24	.19
학교변인	교사지지	-.40*	-.09	-.17
학교변인	친구지지	-.37*	.26	.36
개인변인	자기조절능력	-.34*	.14	.11
가족변인	어머니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34*	-.08	.02
가족변인	어머니 학대적 양육행동	.29*	-.02	-.23
개인변인	또래압력	.35	-.51*	.18
학교변인	우정의 질	-.13	.21*	-.01
가족변인	부모갈등	.18	.26	-.32*
가족변인	부모지지	-.37	.27	.35
가족변인	어머니 허용적 양육행동	.31	.03	-.03

a : 이 계수값이 클수록 판별함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의미함.
 * : 각 변인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함수를 표시하는 부호임.

육행동으로 나타났다. 또래압력과 우정의 질이 제 2 판별함수와 상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제 3 판별함수에서는 부모갈등이 상관이 높은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여학생의 경우 얼마나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어느 정도 느끼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등에 따라 어떠한 또래괴롭힘 유형에 속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

각 집단의 특징을 판단하기 위해 정준판별함수 계수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제 1 판별함수에 의한 정준판별함수 계수에서 유도된 판별함수식은 $Z(\text{판별점수}) = -.19(\text{충동성}) + .15(\text{자기조절능력}) + .08(\text{자아존중감}) - .24(\text{또래압력}) - .52(\text{수치심}) + .19(\text{죄책감}) + .08(\text{감정이입}) +$

$.37(\text{어머니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 .32(\text{어머니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 .14(\text{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 - .07(\text{어머니 허용적 양육행동}) - .07(\text{어머니 학대적 양육행동}) - .27(\text{부모지지}) + .04(\text{부모갈등}) - .08(\text{우정의질}) + .63(\text{친구지지}) + .07(\text{교사지지}) - 3.48(\text{상수})$ 이다.

여학생의 경우 제 1 판별함수에 의한 정준판별함수 계수에서 유도된 판별함수식은 $Z(\text{판별점수}) = .45(\text{충동성}) - .07(\text{자기조절능력}) + .17(\text{자아존중감}) + .08(\text{또래압력}) + .36(\text{수치심}) + .15(\text{죄책감}) - .52(\text{감정이입}) - .22(\text{어머니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 .21(\text{어머니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 .23(\text{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 + .09(\text{어머니 허용적 양육행동}) + .06(\text{어머니 학대적 양육행동}) + .02(\text{부모지지})$

<표 8> 정준판별함수 계수

변인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함수1		함수2		함수3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개인변인	충동성	-.19	.45	-.47	-.03	-.31	.43
	자기조절능력	.15	-.07	.40	-.34	.32	.32
	자아존중감	.08	.17	.12	.22	-.04	-.07
	또래압력	-.24	.08	.16	-.59	.55	.47
	수치심	-.52	.36	.18	-.43	-.01	-.49
	죄책감	.19	.15	.05	.51	-.25	-.11
	감정이입	.08	-.52	.54	-.27	-.17	-.24
가족변인	어머니 온정/수용	.37	-.22	-.38	.46	.20	.29
	어머니 거부/제재	.32	-.21	.01	.18	.65	.33
	어머니 방임	-.14	.23	-.19	.28	-.07	.20
	어머니 허용	-.07	.09	.04	-.14	-.45	-.28
	어머니 학대	-.07	.06	-.10	-.03	.01	-.22
가족변인	부모지지	-.27	.02	-.33	.32	.27	-1.70
	부모갈등	.04	-.04	-.16	.49	.01	-.30
학교변인	우정의 질	-.08	-.01	.14	.37	-.23	-.19
	친구지지	.63	-.14	-.10	-.21	.14	2.08
	교사지지	.07	-.16	.18	-.33	-.61	-.32
	상수	-3.482	-1.496	-1.142	1.659	-1.347	-2.835

<표 9> 집단중심값(Group Centroid)

또래괴롭힘 참여유형	남학생 집단중심값(Group Centroid)			여학생 집단중심값(Group Centroid)		
	함수 1	함수 2	함수3	함수 1	함수 2	함수3
가해집단	-.21	-.45	-.14	.83	.32	.01
강화집단	-.04	-.47	-.09	.55	.30	.37
방어집단	.74	.45	-.25	-.83	.26	-.18
동조집단	-.04	-.61	-.12	.67	.51	-.30
피해집단	-1.00	.48	.02	.46	-.90	-.55
방관집단	.43	.00	.62	-.18	-.38	.36

지) -.04(부모갈등) - .01(우정의질) -.14(친구지지) -.16(교사지지) + 1.66(상수)이다.

남학생의 각 집단원들의 함수 1에 의한 판별점수의 평균인 집단 중심값(Group Centroid)을 살펴보면, 또래괴롭힘의 가해집단이 -.21 강화집단이 -.04, 방어집단이 .74, 동조집단이 -.04, 피해집단이 -1.00, 방관집단이 .43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각 집단원들의 함수 1에 의한 판별점수의 평균인 집단 중심값(Group Centroid)을 살펴보면, 또래괴롭힘의 가해집단이 .83 강화집단이 .55, 방어집단이 -.83, 동조집단이 .67, 피해집단이 .46, 방관집단이 -.18로 나타났다. 표 9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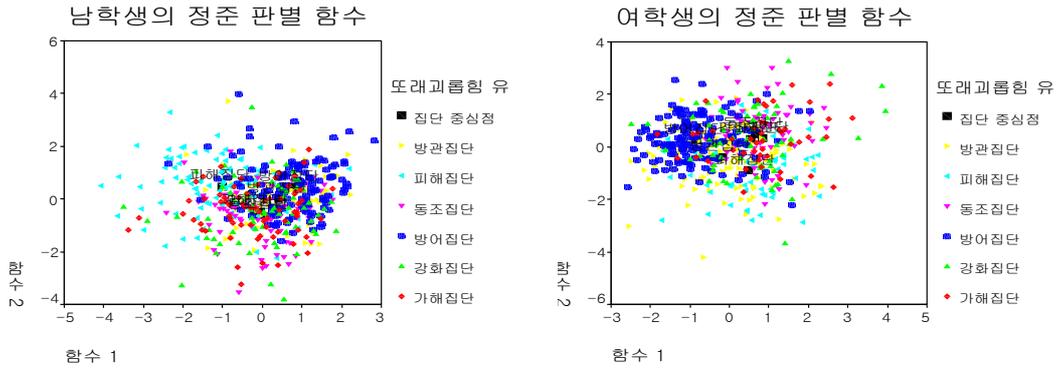
남학생의 제 1 판별함수에 의한 또래괴롭힘 참

여유형별 중심값의 상대적 위치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집단 중심값을 통해 또래괴롭힘 유형간 거리의 차이를 살펴보면, 피해집단과 방어집단의 거리가 가장 멀고, 동조집단과 강화집단은 같은 값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또래괴롭힘 유형이 잘 구별되고 있으며, 방관집단은 방어집단 방향으로 위치해 있으며, 동조집단과 강화집단은 가해집단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제 1 판별함수에 의한 또래괴롭힘 참여유형별 중심값의 상대적 위치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이 집단 중심값을 통해 또래괴롭힘 유형간 거리의 차이를 살펴보면, 방어집단과 가해집단의 거리가 가장 멀고, 방관집단은 방어집



<그림 1> 남학생과 여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간의 중심값 비교



<그림 2> 남학생과 여학생의 도래괴롭힘 유형의 각 집단에 대한 산점도

단에 가깝고, 동조집단은 가해집단과 가까우며, 강화집단은 동조집단에 근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남학생과는 다른 값이지만 방관

집단은 방어집단 방향으로 위치해있으며, 그 외의 집단은 가해집단 방향으로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집단분류 결과표 N(%)

실제집단	남학생의 예측소속 집단 (N = 533)						전체
	가해집단	강화집단	방어집단	동조집단	피해집단	방관집단	
가해집단	21(29.6)	11(15.5)	12(16.9)	12(16.9)	13(18.3)	2(2.8)	71(100.0)
강화집단	7(9.9)	16(22.5)	18(25.4)	10(14.1)	11(15.5)	9(12.7)	71(100.0)
방어집단	7(5.6)	13(10.4)	67(53.6)	8(6.4)	14(11.2)	16(12.8)	125(100.0)
동조집단	11(15.5)	11(15.5)	9(12.7)	23(32.4)	10(14.1)	7(9.9)	71(100.0)
피해집단	8(7.3)	6(5.5)	10(9.2)	10(9.2)	66(60.6)	9(8.3)	109(100.0)
방관집단	7(8.1)	8(9.3)	22(25.6)	7(8.1)	5(5.8)	37(43.0)	86(100.0)
실제집단	여학생의 예측소속 집단 (N = 523)						전체
	가해집단	강화집단	방어집단	동조집단	피해집단	방관집단	
가해집단	18(39.1)	4(8.7)	5(10.9)	9(19.6)	5(10.9)	5(10.9)	46(100.0)
강화집단	12(18.8)	20(31.3)	8(12.5)	5(7.8)	9(14.1)	10(15.6)	64(100.0)
방어집단	5(3.5)	7(4.9)	92(63.9)	10(6.9)	7(4.9)	23(16.0)	144(100.0)
동조집단	16(23.5)	7(10.0)	5(7.4)	22(32.4)	9(13.2)	9(13.2)	68(100.0)
피해집단	6(10.3)	3(5.2)	8(13.8)	5(8.6)	30(51.7)	6(10.3)	58(100.0)
방관집단	17(11.9)	20(14.0)	40(28.0)	2(1.4)	19(13.3)	45(31.5)	143(100.0)

분류정확도(Hit Ratio) : 43.2%(남학생), 43.4%(여학생)

다음은 분류함수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을 얼마나 잘 분류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림 2와 같이 분포되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607명 중 533명이 정확하게 분류되었으며 분류정확도는 43.2%이다. 여학생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574명 중 523명이 정확하게 분류되었고 분류정확도는 43.4%이다.

남학생의 또래괴롭힘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해집단의 분류정확도는 39.6%, 강화집단은 22.5%, 방어집단은 53.6%, 동조집단은 32.4%, 피해집단은 60.6%, 방관집단은 43.0%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해집단의 분류정확도는 39.1%, 강화집단은 31.3%, 방어집단은 63.9%, 동조집단은 32.4%, 피해집단은 51.7%, 방관집단은 31.5%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별로 개인, 가족 및 학교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고, 각 유형을 구별해주는 영향력 있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괴롭힘 참여유형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방어집단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방관집단, 피해집단, 동조집단, 강화집단, 가해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와 피해집단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집단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괴롭힘을 유형으로 분류해 본 선행연구들(Maeda, 2003; Salmivalli, et, al., 1996; 차윤희, 2005)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둘째, 또래괴롭힘 참여유형과 아동의 개인, 가족, 학교변인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

생 모두 또래괴롭힘 참여유형별 아동의 개인변인의 차이에서 가해집단과 동조집단이 비슷한 특성을 보였는데, 충동성, 수치심, 또래압력은 높으며, 자기조절능력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강화집단은 가해집단보다는 동조집단과 더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여학생은 강화와 동조집단이 가해집단과 비슷한 특성을 보여, 강화집단과 동조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Maeda, 2003). 한편 방관집단은 가해집단의 특성과 방어집단의 특성을 일부분 공유하였는데, 남학생의 방관집단은 방어집단처럼 죄책감이 낮은 편이었지만 여학생의 방관집단은 가해집단처럼 또래의 압력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서미정, 2006)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방관집단의 아동들이 또래괴롭힘이 발생한 상황에서 또래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방어집단처럼 피해아들을 방어해주는 소신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또래괴롭힘을 허용하는 분위기에서는 더욱 관여를 안하는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또래괴롭힘 참여유형 가해집단, 강화집단 및 동조집단이 가해성향이 감소할 수 있도록 죄책감을 낮춰주고 자기조절능력이나 자아존중감 및 감정이입의 수준을 높여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방관집단은 가해집단과 유사하게 또래들의 압력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심리적 조절능력을 발달시켜 가해집단과 비슷한 또래압력은 감소시키고 방어적인 특성들은 증가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피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또래압력을 많이 받았지만 여학생은 가해집단, 피해집단 및 방관집단이 또래압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성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였다.

또래들의 압력에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심리적 역량을 키워 또래집단에서 발생하는 괴롭히는 행동의 가해나 피해 및 방관하는 역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변인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피해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들은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과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였으나, 가해와 피해집단은 어머니의 확대적 양육행동을 보고하여 두 집단이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과 동시에 신체적 체벌을 통한 양육은 가해아의 가해행동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며, 처벌적인 양육만을 지각한 피해아는 괴롭히는 행동에 맞서지 못하고 폭력에 순응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가해집단은 어머니가 방임적이고 허용적이지만 온정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을 보였을 때, 일관적이지 않고 애정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으로 또래괴롭힘의 가해행동을 부추길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또래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또래괴롭힘이지만, 그 집단 안에서 선택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또래괴롭힘의 문제에 접근할 때 가족환경도 함께 고려하여 개입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방관집단은 가해집단과 유사하게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양육을 지각하고 부모갈등을 경험하여, 개인변인과 다르게 가족변인에서는 방관집단의 특성이 가해집단과 더 유사함을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도 강화집단과 동조집단은 가해집단과 비슷하게 방임적 양육행동을 경험하였고, 더욱이 가해집단보다 더 높은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보고하고 있어,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없이 행해지는 거부적이거나 제재적인 양육의 영향이 아동에게 내재되어 있다가 자기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타인을 향해 그 내재된 불만이나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면 방관집단이 가해, 강화, 동조의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학교변인에서는 남녀의 피해집단이 친구지지가 매우 낮아 친구와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방어집단은 교사지지가 높았지만, 가해, 강화, 동조집단은 교사의 지지가 낮아 또래 괴롭힘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교사의 관심이나 애정을 지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남학생의 피해집단은 교사지지가 낮아 교사가 피해아동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듯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방관집단이 가해집단 혹은 방어집단이 되는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을 판별해 줄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을 판별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수치심, 친구지지, 부모지지,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또래압력, 충동성, 죄책감, 방임적 양육행동, 부모갈등의 순이었다.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자신이 있어 수치심을 덜 느끼며, 친구의 지지와 부모의 지지가 많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어머니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방어집단이나 방관집단으로 판별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며, 충동성, 죄책감, 또래압력, 방임적 양육행동 및 부모갈등이 많을수록 가해, 강화, 동조, 피해집단으로 판별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학생은 개인변인 뿐 아니라 가족이나 학교변인들이 종합적으로 또래괴롭힘의 유형분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별 중심값의 비교에서 방어집단과

피해집단 간의 거리가 가장 멀었으며, 동조와 강화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며, 가해, 피해, 방관집단은 각각 다른 유형의 집단들과 다른 특성을 보였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을 구분하는데 영향력이 큰 제 1 판별함수에서 함수값이 ± 4.0 이상인 변인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수치심, 친구지지, 부모지지,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및 또래압력으로 남학생은 아동의 개인, 가족, 학교변인이 복합적으로 유형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치심은 실패나 도덕적 위반, 또는 부정적인 결과가 반복될 때 나타나는 정서로 지나친 수치심은 열등감을 갖거나 위축행동 또는 공격성 등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어(한세영, 2007), 아동들이 적절한 수준의 수치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가 지도해야 가해나 강화 및 동조와 같은 부정적 행동을 줄이며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해행동을 지지하거나 암묵적으로 승인하여 가해행동을 부추겨 가해집단에게 심리적 보상이 되는 강화나 동조집단이 또래로부터 심리적인 압력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심리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피해아들도 마찬가지로 또래들의 심리적 압력을 이겨내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하여 친구와 부모의 지지를 향상시키고,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의 부모들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면 여학생의 참여유형을 판별해 줄 영향력 있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충동성, 수

치심, 죄책감, 감정이입,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교사지지, 친구지지, 자기조절능력, 어머니의 거부/제재적이고 학대적인 양육행동이였다. 이는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아를 괴롭히는 심리적 동기가 되는 변인이 높은 충동성이며, 수치심과 죄책감을 많이 느끼면, 가해집단, 강화집단, 동조집단 및 피해집단으로 판별될 확률이 높으며, 감정이입과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방어집단과 방관집단으로 판별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참여유형별 중심값의 비교에서 방어집단과 가해집단의 거리가 가장 멀었으며, 동조집단이 가해집단과 가장 비슷한 특성을 가졌고, 방관집단은 약간 방어집단 방향으로 위치해있고, 피해집단은 강화집단과 방관집단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각각 다른 유형의 집단들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을 구분하는데 영향력이 큰 제 1 판별함수에서 함수값이 ± 4.0 이상인 변인은 충동성, 수치심, 죄책감, 감정이입 및 자아존중감으로 남학생과는 다르게 개인변인만이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여학생은 충동적 성향을 억제하며, 부정적 정서인 높은 수치심을 낮춰주고 자신을 아끼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개인적 변인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적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또래괴롭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아를 돕는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아동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래괴롭힘 유형을 구분하는 변수를 추출된 변인이 남학생은 개인, 가족 및 학교변인이 포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추출되었고, 여학생은 개인변인 위주로 추출되어,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성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행동패턴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또한 같은 척도로 측정함에도 불구하고 또래 괴롭힘 참여유형이나 개인, 가족, 학교변인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같은 행동이라도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또래괴롭힘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또래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국한하여, 그 아동들에 대한 개인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들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동의 개인적인 환경 뿐 아니라 가족과 학교환경도 탐색하여 개인, 가족, 학교변인이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을 판별해 주는 변인들임을 밝혀냈다. 더불어 남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을 판별함에 있어 상관이 높은 변인들이 개인변인 뿐 아니라 가족과 학교변인이 다양하게 영향을 준 반면에 여학생은 개인변인들이 우세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또래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중재에서 성별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유형에 관련된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특히 아동의 개인적인 변인은 가족환경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심리적인 것으로,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경로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 변인, 가족변인 및 학교변인간의 관계를 살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또래괴롭힘의 발생원인이나 특성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또래괴롭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유형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구축을 위해 또래괴롭힘 유형에 해당 되는 아동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할 필요가 있

다. 더불어 적절한 수치심을 가지며 또래로부터 심리적인 압력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심리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문제가 발생한 아동들의 성과 참여유형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차별화된 중재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길임 · 심희옥(2002).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 학년과 성별 비교. **아동학회지**, 23(5), 139-151.
- 김주연(1996). 청소년기의 또래압력(Peer-Pressure)에 대한 교회교육의 대응. 침례신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예성(2000).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용태(1997). **따들리는 아이들 따들림 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윤경(1998). 인기, 무시, 배척집단의 사회기술 및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원 · 이해경(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45-64.
- 김희화(2001).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일반집단, 피해집단 및 가해-피해집단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8(2), 119-142.
- 도현심 · 김선미(2006). 남녀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변인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 존중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117-126.

- 도현심·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기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23.
- 문혜신(2001). 또래의 괴롭힘이 청소년기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숙·손희권(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미연(2000).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보경(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갈등과 또래 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미정(2006). 또래괴롭힘의 완화요인의 탐색 -주변 또래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미정·김경연(2006).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주변 또래 유형의 판별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27(6), 35-51.
- 서미정·김경연(2005). 아동의 개인적 변인이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3(3), 87-201.
- 서의훈(2005). **SPSS 통계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 유귀순(2001). 공격성과 동조성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주(1997). 스트레스와 사회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주(2001). 공격적 행동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집단 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또래관계 비교. **아동학회지**, 22(2), 167-180.
- 이춘재·곡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1), 65-80.
- 이해경·김혜원(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예측 변인들 :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이희경(2003). 문화성향·공감과 동조가 집단따돌림 현상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7(4), 1-24.
- 장영애·이영자(2007).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49-166.
- 전주연·이은경·유나현·이기학(2004).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1(1), 23-35.
- 정선진(2006). 또래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사회적 행동 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친구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희·이미숙(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15-126.
- 정충영·최이규(2009).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 조미숙(2003). 부부폭력목격 청소년의 공격행동에 대한 중재변인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5(2), 85-101.
- 조유진(2006). 집단괴롭힘 목격과 피해 경험의 가해화 경로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차윤희(2005).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학령기 아동의 역할과 사회적 이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미경·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 애착 및 우정 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3), 85-105.
- 하영희(2001). 청소년의 도덕행동에 관한 관련변인 연구 - 권장행동과 금지행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상철(2001).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7(1), 1-21.
- 한세영(2007).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 -

-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jörkqvist, K., Ekman, K., & Lagerspetz, K. (1982). Bullies and victims : Their ego picture, ideal ego picture, and normative ego pictur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23, 307-313.
-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ryant, B.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Dodge, K. A., Coie, J. D., Pettit, G. S., & Price, J. M. (1990). Peer status and aggression in boy's group.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analyses. *Child Development*, 61, 1289-1309.
- Germ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ills, A. E., & Ollendick, T. H. (2002). Peer victimization, global self-worth and anxiety in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1), 59-68.
- Hodges, E. V., & Perry, D. G. (1999).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677-685.
- Hoover, J. H., Oliver, R., & Thomson, K. (1993). Perceived victimization by school bullies : New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32, 76-84.
- Maeda, R. (2003). Empathy, emotional regulation, and perspective taking as predictors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 bully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Marano, E. H. (1995). Big. Bad. Bully. *Psychology Today*, 28(5).
- Menesini, B., Sanchez, V., Fonzi, A., Ortega, R., Costabile, A., & Feudo, G. L. (2003). Moral emotions and bullying :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Bullies, Victims and Outsiders. *Aggressive Behavior*, 29, 515-530.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 Hemisphere (Wiley).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44-660.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 Blackwell.
- Olweus, D. (1994). Annotation :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Olweus, D. (1997). Bully/victim problem in school. Knowledge base and 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Irish Journal of psychology*, 18(2), 170-190.
- Salmivalli, C. (1999). Participant role approach to school bullying :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Journal of Adolescence*, 22(1), 99-109.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 Salmivalli, C., & Vi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8(3), 246-258.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chwartz, D., Farver, J. M., Chang, L., & Lee-Shin, Y. (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 ogy, 30(2), 113-125.
- Sharabany, R. (1994). Intimate friendship scale : Conceptual underpinning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3), 449-469.
- Sutton, J., & Smith, P. K. (1999). Bullying as a group process; An adaptation of the participant role approach. *Aggressive Behavior*, 25(2), 97-111.
- Tangney, J. P., & Dearing, R, R. L (2002). Shame and Guilt. NY : Guilford Press.
- Werner, E. E. (1989). High-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72-81.
-
- 2011년 1월 30일 투고, 2011년 5월 25일 수정
2011년 5월 27일 채택